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관련자료 부산광역시 동시 배포**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환경정책과장	이 상 훈	2133-3510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김 삼 현	2133-3523
담 당 자	박 도 현	2133-352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5개 광역지자체에 소개

- 27일(수) 서울에서 5개 광역지자체 모여 에너지 분권 확대 위한 포럼 개최
- 지역에너지 정책 사례 공유 및 타 지자체와 협력 확대 모색
- 각 광역지자체 정부 건의 사항도 발표 예정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7일(수)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에너지 분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총 5개 광역지자체가 주제발표를 하며, 최근 지역 에너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분권을 위한 포괄예산 문제, 에너지 정책권한 이양 등에 대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먼저,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와 정책 건의’로 발표를 시작하고,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부산시 순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종합대책의 성과 및 신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역에너지 전환 노력과 에너지 분권 확대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 김오천(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 고재경(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이홍석(대전시 에너지산업과장), 김도엽(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이 지정토론을 하며, 이후 청중들의 질문 받는 시간도 갖는다.
- 참고로, 이날 행사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인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가 사회를 맡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TF’ 단장,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 서울시가 소개할 정책은 ‘원전하나줄이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366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절감해 원자력발전소 2기 혹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를 냈다.
- 서울시에 의하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5년 뒤에는 원전 14기, 석탄화력발전소 3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 가능하다.
-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지역 에너지분권 확대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 실행력 제고, 지역별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채택하기를 건의한다.
- 서울시 외에도 이번 포럼에 참가한 지자체들 모두 각자 선정한 정책

을 발표한다.

- 경기도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대해 설명한다. 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문화·환경개선·사회공헌 등 스토리가 있는 경기도형 발전소 조성, 에너지 센터의 민간투자 촉진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충청남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와 미래 에너지 산업 등 더 좋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 노력 중인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을 공개한다.
 - 제주도는 '제주 Carbon Free Island(CFI, 탄소 없는 섬) 2030' 비전에 대해 밝힌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달성, 수송수단의 전기자동차화, 도 전역 스마트그리드화까지 3개 영역을 집중 추진해 2030년에는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이 현재 목표다.
 - 부산시는 저렴한 에너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중앙집중에서 에너지 분권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 지정토론에서는 전국 2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인 김오천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이 먼저 나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본 에너지분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 이어 경기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지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에너지센터 구축을 포함한

에너지분권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그리고 이홍석 대전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스마트 제로 에너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국한돼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넘어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한 에너지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에너지 분권을 위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017 지역에너지포럼」 행사 진행 순서 1부.

【붙임】

행사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개 회 식 인 사 말	박재호(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TF' 단장,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발 표 (각 15분)	
14:10 ~ 15:25	(서울) 원전하나줄이기 5년의 성과와 의미	이상훈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경기)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황영성 (경기도 에너지과장)
	(충남)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	신동현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
	(제주) 제주 CFI 2030	김선홍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장)
	(부산)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정창석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정책관)
15:25 ~ 15:40	휴 식	
15:40 ~ 16:40	지 정 토 론	김오천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홍석 (대전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 김도엽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16:40 ~ 17:00	총 합 토 론	청중 질의 및 응답

※ 상기 진행내용과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